

2019년 09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1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 u r i)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년 09(Vol.51)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김영현, 양시웅, 이예린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619
이메일	yhkim@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9년 09(Vol.51)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 9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 19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대전시, 「영구임대주택 모집절차」 간소화

주택정책과, 2019.09.02.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간소화해 7%였던 공개율을 4%로 낮추고 임대료 수입을 증대했으며 관리비용을 절감시켰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시켰으며 별다른 공고 및 신청기간 없이 1개월 검증기간만 거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해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 「제4회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한옥건축자산과, 2019.09.02.



서울시는 서울한옥 가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우수 한옥 건축환경 조성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제14회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한옥은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우수한옥으로 선정된 한옥은 인증표식 및 인증서 수여와 더불어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소규모 수선 등 한옥유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 2016년부터 매년 1회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55개의 서울 한옥이 우수한옥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정보과, 2019.09.09.



대구시는 지난 9월 10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인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예정지의 전체면적은 988,311㎡이며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다. 또한 서대구IC, 신천대로 진입로와 인접해있어 미래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 추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05% 상향

주택정책과, 2019.09.16.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 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되며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 인상되었다.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거재생과, 2019.09.24.



인천시가 9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 개시 5년 만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 목적은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는 마을주택 관리소의 설치 및 기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집수리 서비스지원 대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도입

건축주택과, 2019.09.25.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입주민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민원 해결을 통해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 제공을 위해 도입 되었으며 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50명의 품질검수단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각 전문가들은 건축시공,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전문가들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한 시정권고와 관리자문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공동주택 특별법」 등 발의

공공택지과. 2019.09.29.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한 법제화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이며 광역 자치단체도 일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관할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대상을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발의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경남도,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최종 승인

항만물류과, 2019.09.05



경상남도는 김해상동 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다. 경상남도는 승인일로부터 2021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해 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최첨단 물류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한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기본구상 발표

도시계획과, 2019.09.05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함께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하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지난 3개월간 공공건축가, 전문가 그룹,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 절차를 각 사업지별로 '사구 주관부서 + 도시 건축혁신단 + 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 원팀의 주도로 진행했다.

대구시, 서대구 부활 위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 발표

철도시설과, 2019.09.09.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을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교통과 환경을 종합적 개발을 통해 부활시키고 대구경제 도약과 균형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대 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현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 되어있었던 지역으로 대구산업의 중심이었지만 곧 기존 제조 산업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노후화되고 지역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번 역세권 개발의 추진으로 120,568명의 고용유발효과와 24조 2,4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조 4,609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8억 확보

도시계획과, 2019.09.10.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58억, 지방비 25억 원의 사업비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확보했다. 이는 엄격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416개소에 총 1,302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마을회관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내년에는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여가녹지 조성 및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생활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착수

재생정책과, 2019.09.10.



인천광역시시는 골목길의 가치,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주민 중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인천형 ‘골목길 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원도심 골목길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두 건축사 사무소와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9일 인천 시청에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만들기 파트너십 협약체결

건축계획과, 2019.09.23.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위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주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인천시, 국민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 추진

주거재생과, 2019.09.23.



‘국민 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는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리빙랩 형태의 기법을 기반으로 사업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빈집 제공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원도심 주거환경을 해치고 슬럼화를 촉진시키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도시재생 형태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제주시, 제주기상청 구청사 활용하여 혁신창업 거점 조성

도시계획재생과, 2019.09.23.



제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신청사를 신축하며 활용이 되지 않던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공간의 명칭은 ‘W360°’으로 wind (새로운 바람이 부는 곳), watch (서로 연결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곳), wish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360° (한계를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봄)의 뜻을 담고 있다. 공간에는 기업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주실과 영상 스튜디오, 단기 창업자를 위한 프로젝트 룸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경남도, 2025년까지 도내 3,456세대 신혼희망타운 공급

건축주택과, 2019.09.26.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며 창원 명곡 등 도내 7개 지구에 3,45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부지, 안전한 놀이터 및 유아를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 신도시 주변 구역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시정책과, 2019.09.26.



도시
정책

성장관리방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이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신도시 주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6개의 면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반대로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 주거형, 상업유통형, 상업형으로 구분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과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시, 시민참여형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도시정책과, 2019.09.29.



도시
정책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위해 ‘생각 나눔터’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일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중기 계획이다. 생각나눔터는 10월부터 읍·면 지역별로 3회씩 개최되어질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통합, 조정,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준공

도시경관과, 2019.09.02.



대전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선도사업으로 동구 대전역 인근, 중구 충남대병원 남측 주거지, 유성구 갑천근린공원, 온천소공원 총 4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폐쇄회로TV, 반사경, 안심벨, 경관조명 등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 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CPO)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1월 착공했다.

대구시, 2019년 하반기부터 6년간 야간경관 조성 추진

도시디자인과, 2019.09.03.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7개의 명소 권역’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의 도심 가로축과 3호선 축’을 중심으로 시민이 즐겁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대구시는 야간경관 개발계획용역을 ‘18년 3월 시작해 ‘19년 7월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향후 6년 동안 총 192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15억을 투자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호강 진출입 권역’을 ‘아름다운 대구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빛의 관문’으로 조성한다. 2단계 사업은 ‘20~22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해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을 개선한다. 3단계 사업은 ‘22~23년까지 22억 원을 투자해 근대문화 권역, 공항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등의 도심가로축과 도시철도 3호선의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빛’ ‘대구만이 갖는 특화된 빛’을 조성해 주요 명소를 더욱 부각시킨다.

부산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중 8개 사업 공모 선정

첨단의료산업과, 2019.09.03.

진행

도시
정책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에 로봇 분야 3개 과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5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총 2년간(2019~2020)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테스트베드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 로봇 실증사업’ 등 8개 과제가 부산시 지원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1년차에는 과제별로 국비 2~3억 원을 투입해 계획 및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은 2년차에 최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14개소로 확대

주거환경개선과, 2019.09.03.

진행

주택
정책

서울시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내에서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대상지를 올해 14개소로 확대해 추진한다.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내 주민공동체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주민공동체 회원 확대와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활동 촉진,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의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마을축제와 마을탐방,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범업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완료

도시정책과, 2019.09.03.

완료

환경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8월 말 기준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지구에 걸쳐 진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영대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지역주민 생활편의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건으로, 투입예산은 35억 원 규모다. 사업 내용은 1지구(대박~박산) 농로개설·구거정비 등 3건, 2지구(호탄~달전) 농로개설·구거정비 등 3건 3지구(영치~용담) 농로개설·구거정비 등 3건, 4지구(영대리) 마을안길 확장 등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생활 편의 사업 및 농업생산시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발산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착공

주택공급과, 2019.09.04.

진행

주택 정책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252세대 (공공53, 민간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축심의회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구포 생태 문화 벨리 조성사업 추진

지역균형개발과, 2019.09.05.



국토
정책



부산시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로 낙동강권 보행전용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사람중심 보행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공간과 낙동강·수영강을 연결하는 보행전용교 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지난달 말 (주)삼영기술의 ‘이음, 프롬나드’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는 나룻배와 물길, 물결을 모티브로 도시철도 구포역과 선착장, 화명생태공원 간 동선을 고려해 보행교 상부에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부산시는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공사는 오는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조성이 완료되면 구포시장부터 화명생태공원, 도시철도역 3호선 구포역을 이어 단절되었던 강과 도심이 연결 되면서 낙동강변이 강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7개 과제 선정

스마트도시과, 2019.09.05.



도시
정책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7대 혁신요소 25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7개 사업은 과제당 2~3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 말 후속평가를 거쳐 2~3개 내외의 우수한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을 사업당 5~10억 원 내외에서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교육일자리(1), 에너지·환경(1) 분야 서비스이다.

경기도,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광고에 착공

경기도시공사, 2019.09.10.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고신도시에 선보인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고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고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 도청신도시 정주환경 제고 위해 11개 사업 추진

신도시조성과, 2019.09.11.



경상북도가 지난여름부터 추진했던 신도시 내 도로변, 아파트 단지 주변의 5개소(60,100㎡)에 코스모스 경관단지 조성이 완료되었다.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의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2023년까지 11개 사업에 3,22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11월에는 작년 12월에 준공된 경북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2023년에 예정된 경북미술관까지 개관한다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청신도시 문화향유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호민지 수변생태공원은 내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을 갖춘 스포츠콤플렉스 지구를 만들고 공무원교육원과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상주인구 3만 명 이상의 신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울릉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항만물류과, 2019.09.13.



건축
정책

경상북도는 제4차('18~'27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울릉도의 교통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단위 10개년 계획이다. 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군은 올해에는 쫓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과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울릉도민과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8개 사업(국비 51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24개 사업(국비 267억 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도, 도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시계획과, 2019.09.15.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오래된 구도심의 슬럼화로 도시가 쇠퇴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쇠퇴하는 원도심 기능회복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14개 시·군, 21곳* 4,352억원 규모의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17년 4월 정부에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표하고 매년 100곳 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중앙정부에서 30곳을 직접선정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70곳을 선정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하여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사업추진 : (14개 시·군, 21곳) 포항(중앙, 송도, 신흥, 흥해), 경주(황오, 김천(평화), 안동(중앙), 구미(원평), 영주(영주, 휴천), 영천(완산1,2), 상주(동성, 계림), 문경(점촌), 경산(사정, 서상), 의성(의성), 영양(서부), 성주(성주), 고령(래빈)

서울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재생 본격화

주거환경개선과, 2019.09.17.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18.3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이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2020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

정책기획관, 2019.09.17.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구좌읍 ‘마을 여행사’사업 등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주민 주도의 지역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별 컨설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제주도 읍·면·동 사업 비중을 늘려 지역 간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는 토대를 만들어 왔다.

* 선정사업 : (구좌읍)마을여행사 사업, (한경면)저지 수놓음 행복방 사업, (우도면)문화 공간 조성 사업, (노형동)월산 마을 행복센터 사업, (대정읍)어르신 문화로(老) 소확행 사업, (표선면)진동산 프로젝트 사업, (영천동)돛드르 HAPPY 토핑 사업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공원조성과, 2019.09.22.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 시민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부지에 역사공원 조성 추진

DMZ정책과, 2019.09.23.



2012년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 만으로,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이다. 도와 국방부는 2014년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도는 다음달 내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2019.09.23.



광주광역시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빛고를 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남구 효우로 신기교 버스승강장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보회관 사거리에서 서방사거리 구간에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110m를 추가 설치했다. 또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필문대로(도내기시장~남광주고가), 중앙로(KBC~중앙대교), 송정로(광주송정역~송정사랑병원) 등 3곳에 총 길이 1610m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자체 컨설팅 감사를 통해 지적된 노인보호구역 38곳에 대해서도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11월까지 정비·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 용문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정책과, 2019.09.25.



경기도는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지화 예정 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영등포역 앞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 개선 완료

보행정책과, 2019.09.25.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 중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거리가게는 영중로 내에서 혼잡도가 덜 한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했으며, 규격을 통일 (가로 2.1m, 세로 1.6m)하고 간판도 정비해 허가된 하나의 가게로서 모습을 갖췄다. 거리가게가 있던 기존 공간은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넓어져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노후한 보도를 정비하고, 가로수도 절반으로 줄여(52주→26주)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루 유동인구 31만 명, 40여개 노선이 지나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되고, 대기공간은 확장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추진

도시계획정책관, 2019.09.30.



대구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2곳을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된 2곳은 동구 ‘신지 에코아일랜드 경관조성’사업과 북구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지 에코아일랜드 경관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원(국비 9억원, 구비 1억원)으로 동구 혁신도시 및 안심뉴타운의 연결 지역에 위치한 신지에 부유분수 설치, 인공 식물섬, 산책 탐방로 등을 조성해 친수공간 조성 및 새로운 녹지 공간 창출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원(국비 7.9억원, 구비 0.9억원)으로 북구 동변동 산 24-2번지 화담산 일대에 숲체험시설, 쉼터, 보행안전시설, 수목식재 등 등산로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욕구 충족 및 산림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학봉전망대 설치, 화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공 식물섬(A=1,200㎡), 산책 탐방로(B=2m, L=1.2km), 부유분수 2식, 경관조명 등

** 노면정비(B=2m, L=4km), 숲체험시설 1개소, 쉼터 조성 2개소, 야생화 식재 등

경기도,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규제개혁담당관, 2019.09.09.

완료

도시
정책

환경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 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지난 9일에 공개했다. 이는 중첩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이다. 규제지도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있으며 8가지의 규제는 아래와 같다.

- 1.수도권정비계획법
- 2.군사시설보호구역
- 3.개발제한구역
- 4.상수원보호구역
- 5.수변구역
- 6.특별대책지역
- 7.공장설립제한지역
- 8.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경남도, 스마트 도시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책과, 2019.09.17.

진행

도시
정책

안전

경상남도는 이번 국토교통부와 주관하는 '2020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지원 사업'에 창원·진주·김해시가 선정되어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다. 경상남도는 2020년 국비를 포함한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의 84km 도로 상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통 혼잡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해 교통흐름 개선하는 '스마트교차로' 10개소, 교통량의 모니터링과 돌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폐회로티브이' 18개소,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 4개소 구축이 있으며 주차장 이용과 편의를 위해 도심 내 주차장 정보 수집 및 처리하는 '주차 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 교통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자 제어 및 통신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한 시스템

제주시, 공간정보 및 산림지리정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디지털융합과, 2019.09.22.



제주도는 공간정보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합하고 언제 어디서나 행정 검색을 활용해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모바일 플랫폼 ‘공간정보 모바일 및 산림지리정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는 무선인터넷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사업이다. 본 사업은 행정시로 분리 관리 되고 있던 산림지리정보를 공간정보 업무포털로 통합하여 각 부서의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며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귀포시에서 별도 관리되던 산림 지리정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공간정보업무포털로 통합 및 정보를 표준화하여 행정 담당자가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